

	<h1>보 도 자 료</h1>	작성과	예 방 안 전 과
	<p style="color: red;">2019년 2월 28일(목) 조간 (2. 27. 12:00 이후)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담당자	과 장 지만석 사무관 홍준기
		연락처	044-205-4510 044-205-4515

## 봄의 시작, 3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!

- 산불, 화재, 황사(미세먼지), 해빙기 안전사고, 대설 -
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,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.

산 불	화 재	황 사 (미세먼지)	해빙기 안전사고	대 설
				

-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(재해연보, 재난연감 / 행정안전부)에 따른 발생빈도\*와 사회관계망 서비스(SNS)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\*\*를 고려하였다.

\* 3월에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월평균보다 높은 유형

\*\* 3월(13~18) 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(1억 4,738만 건) 분석(국립재난안전연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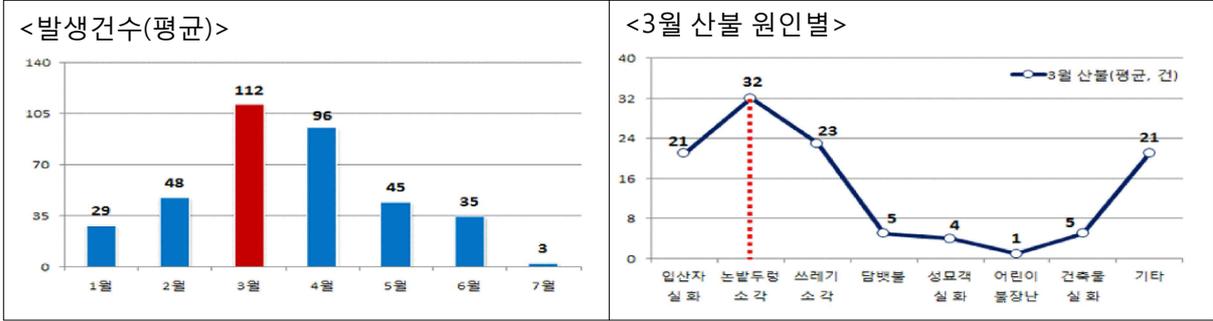
-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,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.

- (산 불)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.

※ 봄철의 낙엽 속 수분 함량: 14~16%(국립산림과학원)

※ 최근 10년간\*07~16) 건조특보 현황: 3월 25회, 월평균 13회(기상청)

최근 10년간('09~'18) 산불발생 현황



[출처: 산림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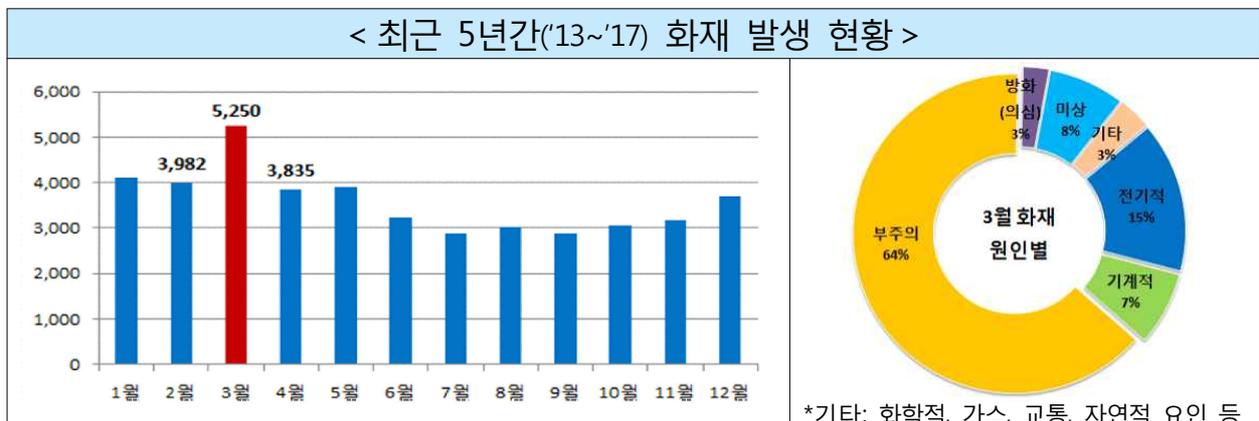
- 산불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, 입산자 실화나 논·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-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, 부득이 하게 논·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시·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
□ (화재) 3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달로, 전열기 등의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 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많다.

※ 최근 5년('13~'17)간 화재 건수 연간 월평균 3,585건 3월 평균 5,250건,  
 최근 5년('13~'17)간 임야(들불, 산불)화재 건수 연간 월평균 243건 3월 평균 875건,

- 특히, 담배꽂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\*(평균 3,349건, 64%)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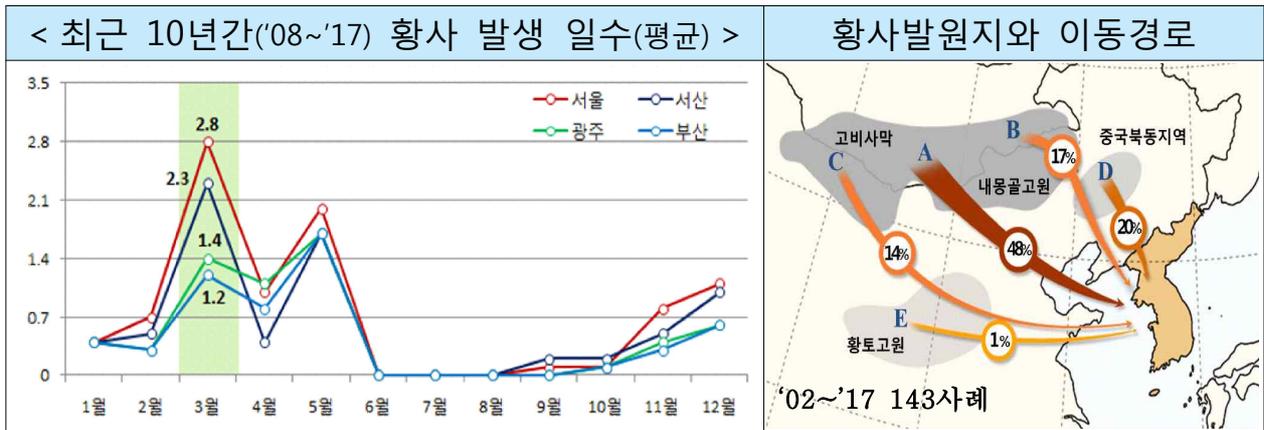
\* 담배꽂초, 쓰레기 소각, 불씨·불꽃·화원방치 등(화재통계연감)



\*기타: 화학적, 가스, 교통, 자연적 요인 등  
 [출처: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]

-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, 담배꽂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버리도록 한다.

□ (황 사) 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.



[출처: 국립기상과학원, 황사연무보고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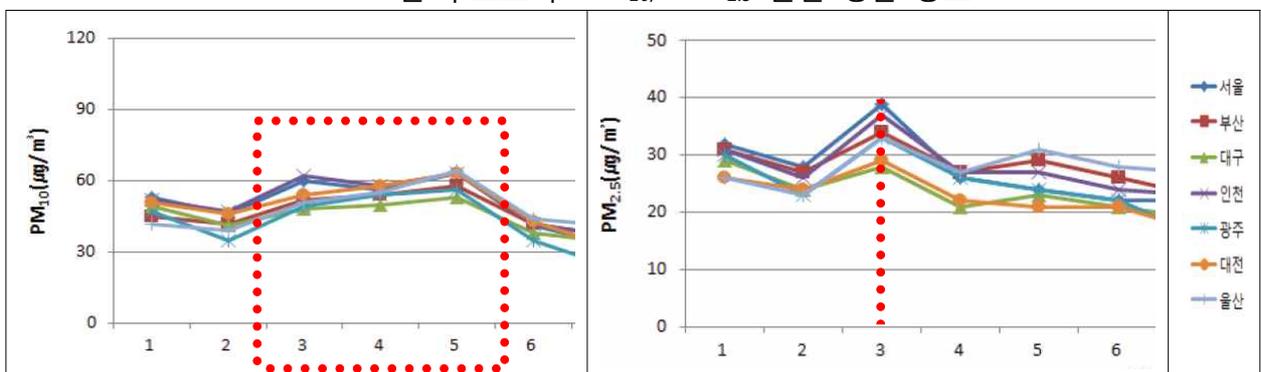
※ 최근 10년간('07~'16) 황사 특보 현황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황사(회)	-	30	61	14	54	-	-	-	-	-	18	26

- 또한, 황사 외에도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\*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.

\*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 $\mu$ m 이하의 먼지로, 10 $\mu$ m 이하인 PM-10과 2.5 $\mu$ m 이하인 PM-2.5로 구분 ※ PM: particulate matter

< '17년 주요도시 PM-10, PM-2.5 월별 평균 농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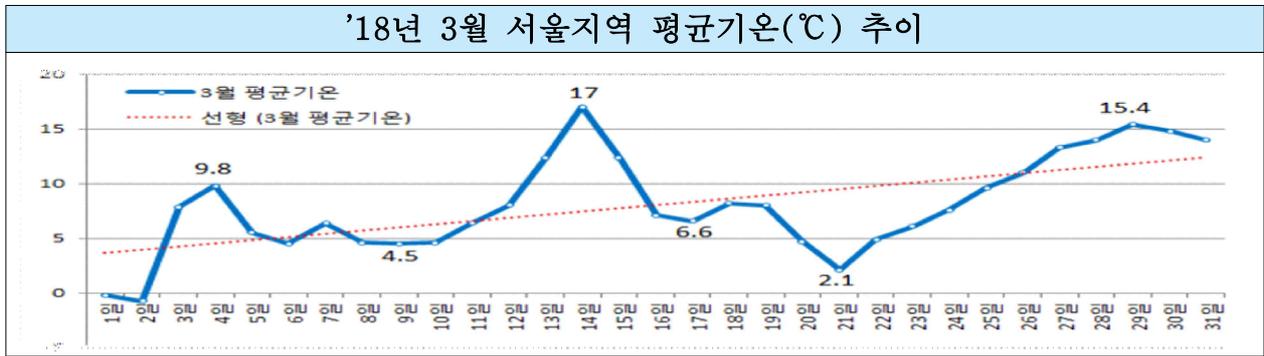


[출처 : 환경부 대기환경연보]

-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등을 닫아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,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한다.

□ (해빙기 안전사고)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려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설 공사장, 노후주택, 축대·옹벽, 잘린 땅(절개지) 등에서의 낙석과 붕괴사고에 주의한다.

※ 최근 10년간('08~'17년) 해빙기(2월~3월) 안전사고 발생 45건, 인명피해 20명(사망 8, 부상 12)  
'14.03.16 서울 북한산 인수봉 인근 낙석 사고(사망 1명, 부상 1명)



[출처: 기상청]

-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.

- 특히, 잘린 땅(절개지)이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흙모래 등이 흘러 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본다.

□ (대설) 최근 10년간('08~'17) 3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는 총 4회이며, 279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.

※ 최근 10년간('09~'18) 3월 눈 현상 일수: 1.7일

< 최근 10년간('08~'17년) 대설 피해 현황 >

구분	합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피해발생(회)	38	10	9	4	-	-	-	-	-	-	-	3	12
인명피해(명)	-	-	-	-	-	-	-	-	-	-	-	-	-
재산피해(억)	2,266	580	596	279	-	-	-	-	-	-	-	80	731

※ 해당년도 피해기준

[출처: 행정안전부 재해연보]

▶ ('13.3.20. 대설)

북동기류가 유입되어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림

※ 최심신적설(cm): 속초 15.0, 대관령 7.4

▶ ('10.3.6.~3.10. 대설)

동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9~10일에는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를 이루며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발생

※ 최심적설(cm): (8일) 속초 33.6, 동해 10.2, (10일) 동두천 21.2, 서울 13.5 등

※ 대설특보 발표 기준

주의보	경 보
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	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(산지는 신적설 30cm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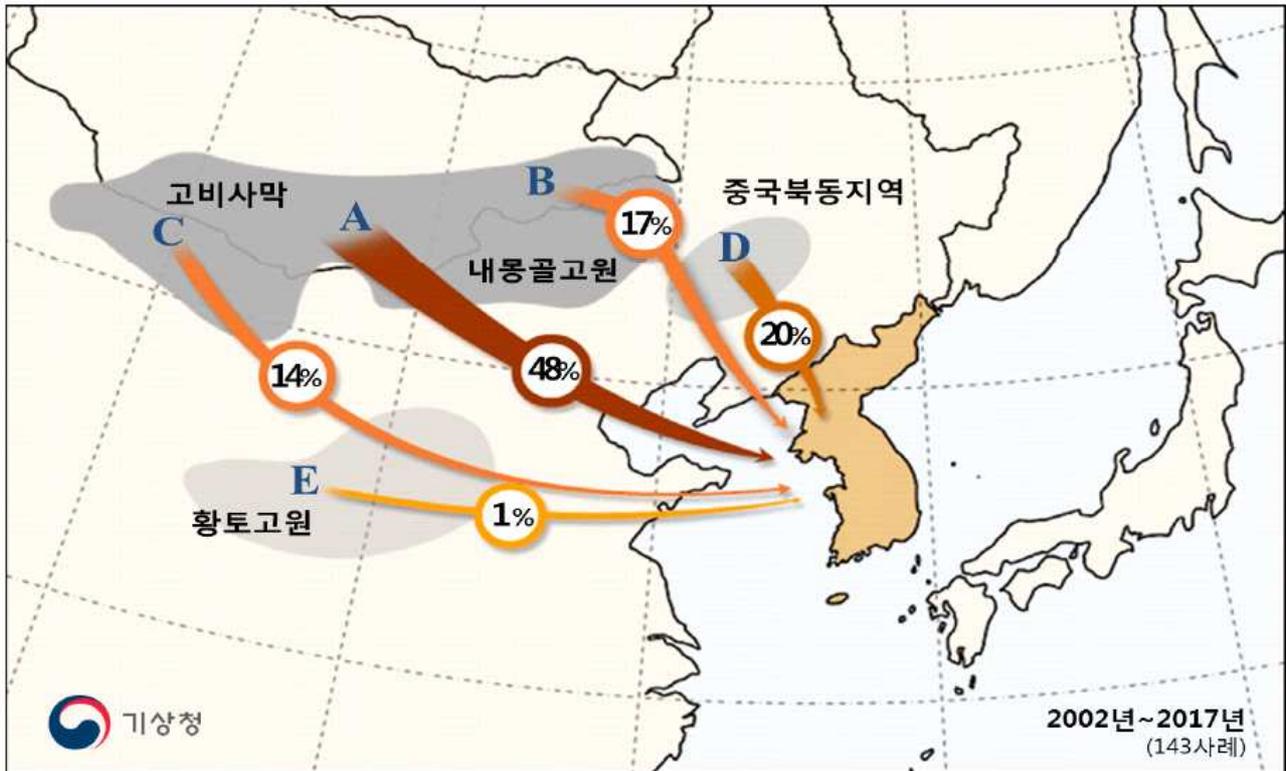
[출처: 기상청]

- 3월은 기온이 높아 내린 눈이 빨리 녹지만, 눈이 녹았더라도 응달인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지킨다.

-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“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 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며,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.” 라고 말했다.

## 참고 1

###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



□ 이동경로 구분(최초 발원지 및 이동경로 중심으로 판단)\*

- A : 고비/내몽골 → 발해만(요동반도) → 한반도
- B : 고비/내몽골 → 만주 → 요동반도 → 한반도
- C : 고비/내몽골 → 황토고원 → 한반도
- D : 만주 → 요동반도(북한) → 한반도
- E : 황토고원 → 산둥반도 → 한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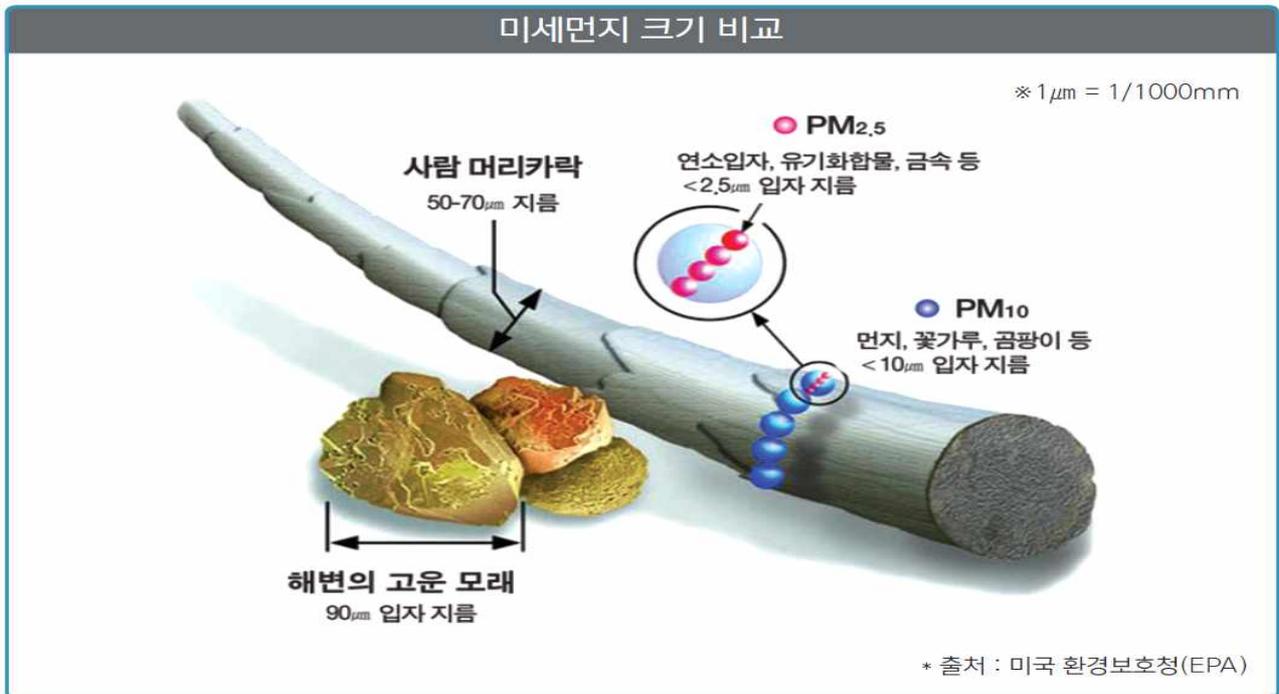
\* 황사일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, 위성영상이나 황사예측모델도 참고

※ 이동시간: 이동고도 및 상층기류의 속도에 따라 다르나, 평균적으로 고비사막 3~5일(1~5km), 황토고원 2~4일(1~4km), 내몽골고원 1~3일(1~4km)

※ 발원지 발원 황사량 중, 발원지 재침전(30%), 주변지역 영향(20%), 장거리 이동(50%)

## 참고 2

## 황사와 미세먼지 비교



구 분	황 사	미세먼지
정의	-중국, 몽골의 사막지대 등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-입자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경우 통상 1~10 $\mu$ m 수준	-직경이 10 $\mu$ m이하인 먼지로서 10 $\mu$ m이하인 PM <sub>10</sub> 과 2.5 $\mu$ m이하인 PM <sub>2.5</sub> 로 구분
성분	-주로 토양성분	-일부 광물성분도 있으나 주로 탄소 또는 이온성분
영향	-부정적 영향: 농작물 등의 생육방해, 반도체 공장 등 조업방해 등 -긍정적 영향: 토양의 산성화 예방	-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, 조기 사망률 등 증가 ※ 긍정적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
예보제	-열은, 짙은, 매우 짙은 황사 등 3가지 황사강도 적용 -황사특보(주의보, 경보) 등 실시	-PM <sub>10</sub> , PM <sub>2.5</sub> 에 대해 '좋음', '보통', '나쁨', '매우나쁨'의 4가지 예보단계 적용 중 -미세먼지 경보제 시행중

\* PM은 미세먼지를 일컫는 Particulate Matter의 약자

국민행동요령

# 화재



## 화재대처

### · 화재경보가 울릴 때

**1**  
비상소집을 합니다.



-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.

**2**  
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.



-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.
-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.

**3**  
신속히 대피합니다.



-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.
-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.

**4**  
119로 신고합니다.



-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.
-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.

**5**  
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.



-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.
-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.

# 화재

## 화재대처

• 불을 발견했을 때

###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때

-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**불이야**라고 소리치거나 **비상벨**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.



###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.

-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.
-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.
-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,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.



배상구 활용



완강기 활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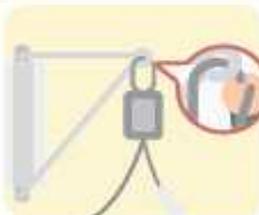
경량칸막이 활용



실내대피공간 활용

※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패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
## • 알아두세요! 완강기 사용법



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.



2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(줄)을 단진다.



3 완강기 벨트를 가슴높이까지 걸고 조인다.



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.

완강기 통 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합니다.

1.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.
2.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(줄)을 단진다.
3.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.
4.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.

# 화재

## 화재진압

### • 소화기 사용법



- 1. 안전핀을 뽑는다.
- 2.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.
- 3. 손잡이를 움켜쥐는다.
- 4. 분말을 끌고루 쏜다.

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

1.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.
2.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.
3. 손잡이를 꼭 움켜쥐는다.
4. 분말이 끌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.

### • 소화기 사용법



- 1. 문을 연다.
- 2.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.
- 3. 밸브를 돌린다.
- 4. 불을 향해 쏜다.

2인 1조로 사용할 경우

1.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
2. 호스를 밖으로 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(관창)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.
3.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후 뛰어가서 호스를 걷는 것을 도와준다.
4.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.

### • 옷에 불이 붙었을 때



- 1. 멈춘다.
- 2. 눈과 코와 입보호
- 3. 엎드린다.
- 4. 뒹군다.

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

1.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
2. 얼굴(눈, 코, 입)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.
3. 바닥에 엎드린 후
4. 몸을 뒹글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.

# 황사·고농도미세먼지

## · 가정에서는



황사·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 
창문 등을 점검하고, 마스크를 준비합니다.  
\*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기가 필요



노약자, 호흡기 질환자의 **실외활동을 줄이고**,  
외출할 때에는 **마스크를 착용**합니다.  
\* 마스크 착용시 용연막 경우 칸막이가격에 상당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.



어린이는 **실외활동을 줄이고**,  
집에 빨리 갑니다.



외출 후에는 **손과 발을 깨끗이 씻**습니다.



황사·미세먼지가 종료 후에는 충분히  
**환기를 하고, 청소**를 합니다.



황사·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 
충분히 **씻어서 먹거나 사용**합니다.

## ·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에서는 · 농촌에서는



원아·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,  
미세먼지·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 
지도합니다.



비닐하우스·온실·축사 등 시설물의  
출입문과 환기장을 점검합니다.



방목장의 가축은 **축사 안으로 대피**시키고,  
비닐하우스, 온실, 축사의  
출입문을 닫아 황사 노출을 방지합니다.

# 대설



산간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, 연료 등  
**비상용품**을 준비합니다.



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.



스노체인, 임화칼슘, 삽 등  
**자동차 월동용품**을 준비합니다.



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 
**대중교통**을 이용합니다.



차량 운행 시에는 **저속 운행**하고,  
**안전거리**를 확보합니다.



차량이 고립된 때는 **119에 신고**하고,  
차 안에서 TV, 라디오, 인터넷 등을 통해  
**기상 상황**을 확인하며 **구조**를 기다립니다.